

“관절염·근육통 안고 살아”... 환경미화원, 4만여 걸음에 5t 수거

코로나로 늘어난 쓰레기 수거량에 건강 ‘적신호’

늦게 내놓은 쓰레기, 다시 수거하는 2차 수거’ 생겨

“쓰레기 대란인 만큼 더 많이 뛰어 야죠.”

동 트기 전 어둠이 짙게 깔린 지난 18일 오전 광주 동구 서석동 주택가.

4.5t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췄다. 연 두색 안전 조끼를 입고 털 모자·장화로 중무장한 환경미화원 2명이 골목 안을 향해 밟아 뒀었다.

미화원들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정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부지런히 뒀었다.

1대의 수거 차량마다 3인 1조로 구성된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 까지 2개 동의 모든 쓰레기 수거를 마친다.

주택 문 앞에 10~500 종량제 봉투가 쌓였다. 불과 30~40초 만에 주택

3가구를 돌며 목직한 쓰레기 봉투를 양 손에 쥐고 나오길 수 차례 반복했다. 미화원들은 수거한 쓰레기를 압착판 속으로 던졌다. 종량제 봉투가 ‘탁’하고 터져 계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영하 5도의 날씨에도 미화원의 땀에 땀이 흘러내렸고, 호흡은 가빠졌다.

미화원이 숨 고를 틈 없이 “가세”라고 외치자 차량이 출발했다. 미화원은 차량에 오르내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다음 수거 구역 30여m까지 켜 걸음을 걸었다.

미화원은 “코로나19 이후 외식과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쓰레기가 한 구역당 3~4봉지에서 6봉지로 늘었다. 1번 수거할 것을 2차례 오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같은 날 동구 용산동 한 주택가에선 재활용품 수거 미화원이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 거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느라 분주했다.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은 배달 용기에 찌꺼기와 양념이 남아 있어 수거가 불가능했다.

미화원은 “배달 용기 내 잔여물을 세척, 버려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용기가 부쩍 늘었지만 깔끔하게 세척해 버린 세대가 드물어 스티커 붙이는 시간도 상당 소요된다”고 말했다.

미화원들의 휴게 시간은 30분이다. 이들은 오전 11시께 인근 식당을 들러 20분 동안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나머지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졌다. 법적으로 1시간 휴게 시간이 보장됐지만, 늘어난 쓰레기 수거와 오후 2시까지 ‘2차 수거’를 마치려면 휴게 시간을 줄여야 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나해부터 큰 도로변을 돌며 주민이 늦게 내놓은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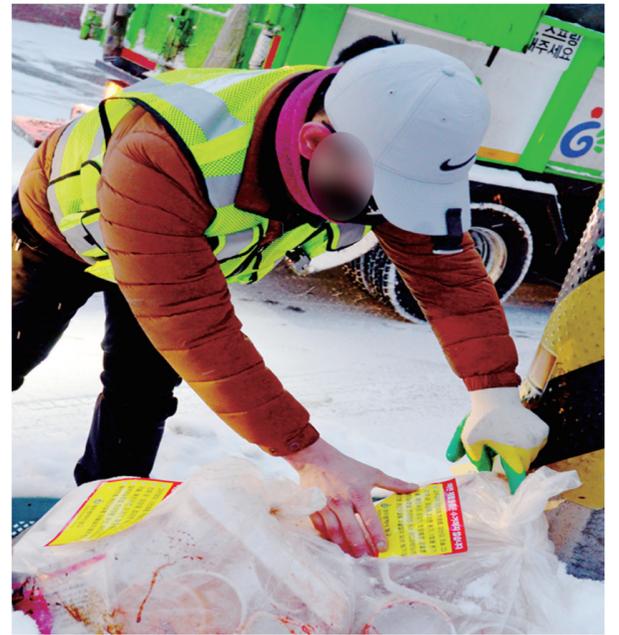
레기를 다시 수거하는 ‘2차 수거’가 생겼다. 구청에서 증원하고 쓰레기 차도 늘렸지만 역부족이다. 코로나19 이후 쓰레기량이 40% 늘어난 데다, 2차 수거가 생기면서 업무량이 배로 늘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하루 평균 3~4만 보를 걷고 약 5t의 쓰레기를 옮기는 미화원들은 근육통·관절염을 달고 산다.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과 부항 등은 필수품이 됐다.

또다른 미화원 B씨는 “연골 수술을 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발바닥이 찌릿한 통증을 안고 산다. 병가를 쓸 수 있지만, 업무 공백이 생기면 담당 다른 미화원의 업무가 가중돼 망설여진다. 병원 물리 치료나 집에 비치한 전기 치료기로 통증을 달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일일 평균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은 ▲ 2018년 74.7t ▲ 2019년 83.3t ▲ 2020년 98.5t 등으로 나타나 꾸준히 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포근한 날씨 즐기는 시민들 수도권 지역에 낮 최고기온이 17도 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연을 날리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합원에 금품 건넨 60대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

협 조합장 A(6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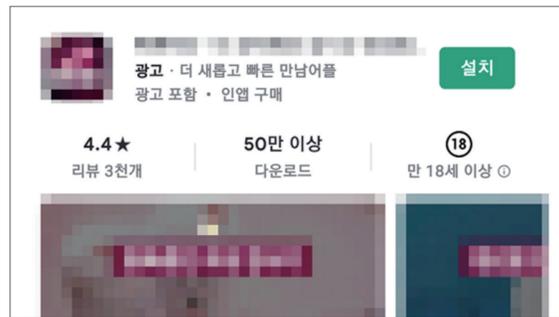
A씨는 2018년 11월 30일 광주 지역 조합원 B씨의 밭에서 B씨에게 ‘이번에 한 번만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며 현금 30만 원과 식료품을 건넨 혐의

다. A씨는 같은 날 B씨와 공모해 광주 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조합원 C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 도와달라’며 현금 20만 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스스

여가부, ‘19금’ 표시 없는 랜덤채팅앱 12개 형사 고발

앱 55%는 안전장치 마련 이행...청소년 이용 가능



정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됐음에도 여전히 만 19세 미만 이용 불가 안내를 하지 않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12개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을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 앱 12개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랜덤채팅앱 중 ▲실명·휴대전화로 통한 인증 ▲대화저장 ▲신고 3가지 기능을 갖추지 않은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익명의 누군가와 무작위로 연결돼 대화를 주고받는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고시 시행에 앞서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2차례에

걸쳐 이들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됨을 알렸다. 시행 이후에도 사업자에게 2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형사 고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랜덤채팅앱 408개 중 227개(55.6%)는 실명인증, 대화저장, 신고 기능을 갖췄다. 이 경우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다. 다른 154개 앱은 운영이나 판매를 중단했고, 성인인증 기능을 갖춘 15개 앱은 성인용으로 운영한다.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랜덤채팅앱 144개 중 135개도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인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구글·애플·윈스토어 측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105건을 판매 중단하고, 다른 30건은 이달 중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향후에도 랜덤채팅앱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개선을 요구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